

제목: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의 기쁨"

말씀: 마태복음 2장 1-12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가지고 온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고 크게 기뻐하면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지만 특별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으로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 1) _____ 하고자 하여 나아옵니다. (2절)
- 2) _____ 만 보고 나아옵니다. (2절)
- 3) 가지고 온 것을 _____ 위하여 나아옵니다. (11절)

지난 주 헌금	
주일 헌금	
특별 헌금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New Heart to God" (II Cor. 5: 17)



주일 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r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마태복음 2장 1-12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Matthew 2: 1-12 신약 2 페이지 Presider
- 말씀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들의 기쁨"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Happiness of Magis Rev. Kim
- 찬양 111(111) 귀중한 보배함을 다같이
Praise Bringing Our All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r
- * 찬양/헌신기도 온 맘 다해 다같이
Praise and Prayer With my whole heart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물 폭탄)

지난 주 그동안 뜸했던 비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4일간 거의 쉬지 않고 내린 비로 더러웠던 자동차는 깨끗하게 되었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 뒤 들 낮은 곳에 물이 차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비가 올 때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난다.

캘리포니아 LA 지역 내가 살던 곳은 보통 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서 홍수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았다. 그래서 그런지 일 년에 몇 번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작은 홍수가 나곤 했다. 작은 홍수라고 표현한 이유는 길거리에 나는 홍수가 아니라 집 안에서 생기는 홍수를 뜻한다.

내가 살던 곳은 50여년 된 집이었는데 그 집으로 이사를 한 후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하수도 시설과 같은 것이 마당에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무엇인지 몰라서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비가 한 번 온 후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뒤 마당에 비가 와서 물이 모여 흐르면 그곳으로 물이 내려오는데 그 속에 크지 않은 공간이 있어서 물이 채워질 경우 그 안에 모터가 물을 자동적으로 퍼내어 파이프를 통해 길거리로 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펌프질을 하는 모터(Sump Pump)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물이 바로 옆에 있던 차고 안으로 흘러 들어와 집 안이 홍수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라서 고만하다가 모터가 작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음을 알았고 뚜껑을 열어 보니 한 30년이 넘었을 것 같은 모터가 거기에 있었다. 잘 알지 못하였지만 여기저기를 만져서 얼마간 다시 사용한 적이 있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그 때 생각이 나곤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마찬가지로 퍼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때가 많다. 예배소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총명이 어두워지는 것,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리고 감각 없는 자가 되는 것 등이 홍수와 같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입어 내 마음과 생활에서 퍼 내지 않는다면 그 홍수를 감당하지 못하여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24절)고 하신다. 말씀을 통하여 퍼내라고 하시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홍수에 죽지 않는 비결은 퍼내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퍼낼까?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말씀을 가슴에 품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수가 나의 삶에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뜻한다. 그 때에 어떠한 홍수도 겁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에 물 펌프와 같은 분이시다. 마음이 새로워져서 엉뚱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게 하신다. 홍수가 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며 점점 더 험해져가는 세상에서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후 친교실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2. 기도의 삶

하루 30분씩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이번 주 기도제목

- 1) 모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일 잘 감당하도록
- 3) 새로운 성도들이 잘 정착하도록
- 4)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이 모임 수 있도록
- 5) 새로이 사역 하실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중고등부, 아동부)
- 6) 하나씩 새롭게 진행 되는 교회의 사역들이 잘 정착되도록
- 7)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을 위하여
- 8)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기도하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생명의 삶 12월호가 도착했습니다. 한 권씩 가지고 가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5. 헌금 봉투

헌금 봉투가 준비 되었습니다. 봉투 몇 개씩을 가지고 가서 예배 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봉투에 헌금 내용을 체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12월 행사

12월 25일(수)	오전 10시	성탄절 예배
12월 31일(화)	오후 11시 20분	송구영신 예배 (성찬식)
1월 5일(주)	예배 후	2020년 계획 나눔
1월 12일(주)	예배 후	2019년 결산/예산 모임

7. 생명의 삶

12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5입니다. 구입하셔서 매일 같은 구절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